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낭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㉔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㉕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20. ㉔~㉕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㉕: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㉔: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㉕: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㉕: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만 뒤편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 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냇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였었다

- 김영랑, 「연 1」 -

* 아슴풀하다: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아슬아슬’의 방언.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씨 불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옮긴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물결무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난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스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뉘’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이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이 ‘물을 보는 법’을 ‘썩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길길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핏색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 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뭐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뻥뻥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 멸절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헬썩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뺨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단전만 피우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 ②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 ③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 ④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⑤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2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와 ㉤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은 ㉤을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는 ㉥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는 ㉦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30.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킁킁거리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② ㉡: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먼 산 두메로 평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술질 활활 활활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송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끓으나 끓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뺀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툇툇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근 놀려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중: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정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홍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